

# Yes나 No나...안철수 입에 쏠린 눈

## 문·안·박 공동 지도부제 제안 수용여부 내일 결론

### 수용시 갈등 봉합 전기...거부시 내홍 확산 불가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18일 광주 강연에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카드를 제시한데 대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오는 29일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힐 예정이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당초 24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표 제안의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영결식이 끝난 이후인 오는 29일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안·박 공동 지도부' 구상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안 전 대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전 대표 주변에서는 '문 대표의 들러리를 설 수 있다'며 공동 지도부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 대표의 구상을 거부하면 당 내홍이 격화, 분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반면,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손을 잡는다면 4·29 재보선 참패부터 7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당내 갈등을 봉합할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와 각을 세운 비주류가 안 전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주류 진영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듯, 주류 일각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당의 간판급 50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지도부를 꾸려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문·안·박 구상을 거부한다면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당이 시계제로의 혼돈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문 대표는 현재 체제 유지와 대표직 사퇴를 놓고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 대표는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직 유지의 명분은 혁신 공천안이 무력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비주류 진영에서 현역의원 20% 공천 배제 등 공천 혁신안의 수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의 선택을 기다리며 그동안 집단적인 행동을 자제해온 비주류는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본격적으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주류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고 아예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당내 갈등이 극도로 증폭될 경우 비주류의 탈당사태 등 사실상 분당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은 물론 정치권의 지각 변동도 가능하다"며 "안 전 대표의 결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 결론 뭘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파수꾼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미래' 토론회에서 존 킨(오른쪽) 교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주선, 29일 신당 추진위 출범

### 박준영 신민당 내달 창당대회

중도개혁민생실용정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이 이달 말 친정배 의원에 이어 야권 신당 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정권교체를 위한 통합신당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수도권으로 확장해 전국 정당화에 나선 계획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남은 계파정치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

합을 대체하는 대안야당을 만드는 것은 시대의 대세"라며 "서너 갈래로 나뉜 신당 추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 한결같은 여망은 통합된 신당으로 강력한 대안야당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무소속 친정배 의원은 지난 18일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박준영 전 전남 지사가 주도하는 기정 신민당도 다음달 중 창당대회를 하고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기에 맞춰 정당대회를 할 방침이다. /박지기자jkpark@

## 南北, 26일 판문점서 당국회담 실무접촉

남과 북은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기로 지난 20일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전통문을 통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이달 26일 판문점 북측 사기교 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당국회담 실무접촉 수석대표는

남측의 김기용 통일부 회담본부장과 북측의 조평통 서기교 부장이다. 북측 수석대표로는 2013년 6월에도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통해 수석대표로 나온 김성

을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 회담대표의 급,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광주 상수도 2030년까지 6200억 투입

### 주암댐 도수관로 복선화 추진...사업비 확보 관건

광주시가 2030년까지 6200억원을 투자하는 수도(水道)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도수 관로와 배수지 등 기본적인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개량하고 수질개선, 노후관 교체 등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2030년 급수 보급율 99.74%를 목표로 상수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01년 관련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15년만이다. 2008년에는 일부 계획이 변경됐을 뿐이다.

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 급수인구는 166만7000명,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은 323ℓ로 올해 307ℓ보다 16ℓ 많다. 하루 평균 급수량은 53

만8517㎡로 기준년(2015년) 46만6715㎡보다 7만1802㎡ 늘었다.

공급량 대비 가정에 도달하는 비율인 유수율(有收率) 현재 86%에서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확충과 개량, 수질개선 사업 등이 4단계로 나뉘어 모두 627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우선 주암 도수관로 복선화와 용연계통 비상 도수관로 건설이 추진된다.

또 동북담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이어지는 도수터널 건설공사가 내년 6월 마무리 되는대로 불필요해진 용연과 지원계통 도수관로는 폐쇄하기로 했다.

용연과 덕남정수장 계통내 선교, 월남, 지산, 봉선, 송정배수지 등 9곳이 신설 또는 증설된다. /최원일기자 cki@

## “광주 동구·남구 선거구 합구 졸속 추진...즉각 철회를”

### 최영호 남구청장·총선 출마예정자 성명...원탁회의 제안

광주시 남구청장과 내년 4·13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동구·남구 선거구 합구(合區) 문제와 관련,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놨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남구와 동구를 한데 묶는 선거구 획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역 정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광주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8석으로 확정할 여·야 합의안은 환영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남구와 동구 간 선거구 획정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구 획정은 지역발전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몇 국회의원 의견의 뜻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안을 만든 뒤 지역 정치권 연석회의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20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김명진 의원은 “남구와 동구를 묶는 것은 시민의사에 역행하는 졸속맨더링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인구·수·생활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돼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막바지에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동구와 북구를 합할 때 기존 8석보다 1석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현행 8석을 유지하는데는 찬성하면서도 동남 합구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5층, 90평)

→ 5층전용, 90평

즉시입주가 / 시설완비

(주차2대 무료)  
(시비 약간 있음)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우리은행 뒷)

→ 보 2천, 월 130만

**신축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신축 상가원룸 (4면 대리석시공)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 매가 6억9천

**법률경매**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룸 60개~8층, 주택겸사무실)  
☆ 분할등기가능 (향후 60억가치있음)  
☆ 임대수익 (보 3억, 월세 3천만)  
(12월 1일) 경매일  
감정가 35억4천 → **24억8천**

2. 서구 마루동 (주유소)(토 116평, 건 342평)  
감정가 10억 5천 → **최저가 7억**  
광주아울렛 북측 부근,서측방향 순환도로 접

3. 광산구 남산동 (토 106평, 건 178평)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 1층(제조업,냉동창고) 2층(사무실)

4. 북구 중흥동 (의료시설) (토 84평, 건 395평)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 8천**  
→ 1층~5층 (한방병원) 시설완비

**경매 투자**

1. 원금 보장(연수익 20%)  
2. 경매 전문 낙찰부터 개발기회 매매까지 책임중개  
3. 단독/공동 투자 가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억) (10억~100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 여직원)  
경매, 부동산 실무실용 경매컨설팅 교육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 건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

2.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 (토53평, 건 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3.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364평)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8억5천6백**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근물)**

①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매지 144평, 건 260평) → 매가 17억

②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렛 (월수익 1,000만 - 보2억, 용6억) → 매가 20억

③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매지 122평, 건423평) → 매가 28억

④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 월9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① 상무지구 정면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 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5백, 월 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용4천,보5백, 월 42만) → 매가 7천5백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4천5백만

⑤ 나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10분,나주시청2분) (보2천, 월200만) → 매가 3억

**신축원룸 매매 (상가겸용)**

①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7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 원룸6개) (보4천5백, 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용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④ 광양 광명동 상가(A.P.T, 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⑤ 서구 쌍촌동 대문파크 2층(11평) 운전역(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천6백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